

#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시동

(국제자동차경주대회)

## 추진위원회 공식 출범 정·재·학계 위원 38명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J프로젝트) 선도사업으로 추진중인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전남도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정·재·학계 등 각계 지도급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전남도지사 재임 시절 F1 대회 유치에 추진했던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남도가 추진중인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민간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창립총회가 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전남도 제공>

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F1 대회를 민간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F1 추진위원회가 공식 발족함에 따라 전남도가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2010년 F1 대회 개최 추진 및 특별법 제정에 탄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유치가 확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민간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됐다. F1 대회 추진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범국가적 개최 분위기 조성, 정부

및 국회 등 유관기관과 지원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추진위원 명단(38명)

김혁규·최인기·정병국·유선호·채일병·임태희·김홍석·신중식·이상열·이낙연 국회의원, 오세훈 금호타이어 사장, 강주안 아시아 나항공 사장, 정태석 광주은행장, 주영순 목포상공회의소회장, 홍기화 KOTRA사장, 김중민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경석 한국자동차 공학회 회장, 김정환 전남도교육감, 강정재 전남대 총장, 임병선 목포대 총장,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오창식 MBC문화방송 스포츠

제작담당, 전용준 무등일보 사장, 박기정 전남일보 사장, 박홍식 KBC광주방송 사장, 김재관 월간자동차생활 발행인, 이준범 서남권 발전협의회장, 최태욱 서남해안포럼 공동대표, 김재철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박현중 대한체육회스포츠사업담당, 이송자 전남도여성단체협의회장, 정준호 F1홍보대사, 김종철 전남도의회 의장, 김창남 전남도의회 부의장, 홍익식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정중득 목포시장, 박희현 해남군수, 김일태 영암군수.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원·엔 환율 760원대 하락

원·달러 환율이 연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했다. 이에 따라 원·엔 환율은 9년 3개월만에 최저치인 100엔당 760원대로 하락했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0.50원 하락한 934.6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0.10원 하락한 935.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935.50원으로 오르던 매도세가 증가하자 933.40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환율은 저가인식 매수세 유입으로 934원선으로 복귀한 뒤 횡보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엔 환율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100엔당 769.90원을 나타내며 97년 10월24일 762.60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시각 원·달러 환율은 121.38엔을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심포지엄 폐막

## 4월 BIE 현지 실사 준비... 9월 2차 심포지엄

‘2012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열린 국제심포지엄이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9일 폐막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여수가 박람회 주제로 제시한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잇따라, 오는 12월로 예정된 박람회 개최지 결정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지향점’을 주제로, 페데리카 부사 BIE(세계박람회기구) 카운셀러와 리니오 브루토메소 베니시UIAV대학교수 그리고 김웅서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자원연구본부장 등이 열린 토론을 펼쳤다.

우젠민 세계박람회기구 총회 의장은 이날 심포지엄 폐막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가 제시한 주제가 너무도 시의적절하다”고 높이 평가했다. 로세르탈레스 BIE사무총장도 “한국의 주제는 훌륭하다”면서 “기업과 단체의 협력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중앙 정부의 유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심포지엄이 끝난 후 정찬용 2012세계박람회 중앙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최한 오찬에 참석했으며, 헬기와 버스 등에 나눠 타고 광양제철을 비롯한 박람회 후보지를 시찰한 뒤 서울로 돌아갔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오

는 4월 BIE 현지 실사에 앞선 ‘예비 실사’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박람회 주제 홍보는 물론 여수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오는 9월 2차 심포지엄에서는 이번에 부족했던 점을 보강, BIE회원들에게 한국이 확실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각인시킬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한미 쇠고기 협의 종료 ‘뺏조각’ 입장차 못 좁혀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른바 ‘뺏조각 문제’로 알려진 미국산 쇠고기 검역문제를 놓고 이를 통한 머리를 맞댔으나 결국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협의결과가 다음 주 시작될 한미 자유 무역협정(FTA) 7차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러나 양측은 이번 협의로 논의를 끝내지 않고 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 계속 의견 접근을 시도하기로 했다.

8일 양측 대표단은 안양 국립수의검역과 학원에서 ‘뺏조각’의 안전성 여부를 놓고 밤늦도록 치열한 설전을 벌였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시설

### ‘F1대회’ 추진위 출범...역할 기대된다

전남도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추진위원회’가 9일 공식 출범했다. 추진위는 위원장인 김혁규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해 각계 지도급 인사 50여 명으로 구성됐다. 추진위는 앞으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개최 분위기 조성, 유관기관과의 지원 협력 강화 등 F1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민간차원에서 지원활동을 벌인다.

이번 추진위 출범을 계기로 F1 대회 추진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 2010년 영암에서 열리는 F1 대회가 안정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우선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F1 특별법은 늦어도 올 하반기에 통과돼야 한다. 하반기에는 부지 기

반작업에 들어가야 2009년 경기장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탈당 사태 등으로 특별법의 조기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2천여 원에 달하는 경기장 건설비용 마련도 문제다. 특별법에는 그동안 최대 스폰서 역할을 해온 담배회사의 광고조항을 삭제해 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 밖에도 경차사업이 시행성이란 여론에 밀려 특별법에 포함되지 못해 경기장의 사후활용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F1 대회는 연간 400만 명의 관광 동원, 20조 원의 흥행실적 등으로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3대 스포츠로 꼽힌다. 그만큼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 홍보 효과도 크다. 2010 F1 대회는 반드시 성공적인 F1 특별법은 늦어도 올 하반기에 통과돼야 한다. 하반기에는 부지 기

### 정부, 여수엑스포 유치전략 재점검하라

‘2012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이 9일 폐막됐다. 세계박람회 사무국(BIE) 실사단의 여수 방문을 2개월여 앞두고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와 국민들의 박람회 유치 의지를 BIE 관계자 및 회원국 대표와 세계적 석학들에게 알리는 소중한 기회였다. 심포지엄이 성공적으로 평가받은 만큼 오는 12월 박람회 개최지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세계박람회의 주제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우젠민 BIE총회 의장은 “여수의 주제는 세계가 당연한 과정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폴 케네디 미국 예일대 교수도 “해양과 연안을 다뤄야 하는 주제가 너무 중요하고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우리가 이러한 찬사에 자만해선 안 된다. 오히려 로세르탈레스 BIE사무총장 등 참가자들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중앙정부의 의지와 인력 확보, 홍보 활동 강화 등을 강조했다. 또 기업 및 사회 단체의 협력과 여수시민을 비롯 국민들에게 알리는 소중한 기회를 갖고 있는 지도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정부는 유치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경쟁도시인 모로코 탕헤르와 폴란드 브로츠와프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외교력 등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야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국민적 공감대 확산도 빼놓을 수 없다.

이번에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지 못하면 ‘두번 실패’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다. 정부는 세계박람회가 국가프로젝트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사법개혁법·사학법 2월 국회 처리”

### 노태통령-강대표 회담 공동발표문

노태통령과 강대 대표는 9일 사법개혁 관련법안과 사학법 등 주요 쟁점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과 강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회동한 뒤 ‘대변인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합의하고 민생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청와대 홍보수석인 윤승용 대변인과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이 밝혔다.

민생경제 과제로는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및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등 부동산 대책 ▲국민연금제도 개혁 ▲노인수발 보험제

도 도입 ▲대학생 등록금 부담 인하방안 강구 ▲지방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대책 ▲빈곤층 제도전과 자활 촉진 제도적 장치 마련 등으로 정하고, 이들 과제의 추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과 강 대표는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에 대비하는 보완책을 함께 적극 강구해 나가는 한편,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윤승용 대변인과 나경원 대변인은 “이상의 내용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항만·공항 경계 임무 2010년까지 경찰 이관

### ‘국방개혁법 시행령’ 입법예고

현재 군이 맡고 있는 해안과 항만, 공항 등 중요 국가시설에 대한 경계·방호 임무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경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으로 이관된다.

또 국방 문민화 작업의 일환으로 국방부 내 공무원 비율이 2009년까지 70% 이상으로 확대되고 각 군내 군무원의 비율과 여군 장교의 비율도 2020년을 목표로 각각 6%와

7%로 늘어났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공포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9일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현재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 항만, 인천공항을 비롯한 특정 경비지역에 대한 경계·방호 임무가 2012년까지 경찰과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으로 이관된다. /연합뉴스

## 盧 대통령 취임 4주년 ‘2·12 특별사면’ 주요 인사

◇경제인 160명

▲김석원 전 쌍용그룹회장 ▲김석준 쌍용건설 대표이사 ▲박용성 전 두산그룹회장 ▲박용만 전 두산그룹 부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 ▲김태구 전 대우자동차 총괄사장 ▲윤재철 전 한솔텔레콤 대표이사 ▲이수만 에

스텔엔터프라이즈 운영자 ▲정몽훈 전 삼성우전 회장 ▲최용선 전 한신공영 회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공직자 37명

▲권영해 전 안기부장 ▲권해욱 전 공공 사장 ▲김용재 전 건교부장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심인구 전 울산시장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정치인 7명

▲강신성일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권노갑 전 민주당 국회의원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김현철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홍일 전 민주당 국회의원 ▲서상목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효웅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16대 대선 선거사범 223명

▲문성진 영화배우 ▲설훈 전 민주당 국회의원 ▲이상재 전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

오현섭 여수시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오

## 빛의만평

- 김중두

앞뒤로 돌부리보다

## 北-美 협의의 급진전

### 힐 “알 깨기 전 병아리 세진 않겠다”

북한과 미국이 핵폐기 초기단계 이행조치와 상응조치와 관련해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양측 6차회담 수석대표들은 9일 오후 베이징(北京) 리츠칼튼 호텔에서 오찬 회동하고 전날 의장국 중국이 제시한 합의문서 초안을 토대로 광범위한 합의에 대해 집중 협의했다.

2시간여 진행된 회동이 끝난 뒤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도적 문제로 의견을 나눴다”면서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본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일련의 대치점도 있는데 좀 더 노력해서 타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중국이 제안한 합의문 초안을 두고 김 부상과의 견교회를 했다”며 “조심스럽게 낙관하지만 알이 깨기 전에 병아리

를 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이어 “9.19 공동성명의 모든 이슈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 이슈는 9.19 공동성명에 나오는 조항 중 어떤 것을 이번 합의문에 집어넣고 어떤 것을 3,4월까지 미뤄야 하는지(선택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북·미 양측이 중국이 합의문서 초안을 회담시킨 다음 날부터 양자회담을 갖고 협상에 돌입함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초기에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수석대표들은 오전 10시(현지시간) 다오위타이(釣魚臺)에서 2차 수석대표간 회동을 갖고 합의문서 초안을 토대로 의견을 교환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略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	
대표전화 2200-500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